

한은 “8월 기준금리 0.25%p 인상 유력”

물가 당분간 6%대...2-3개월 후 안정 전망 “물가가 예상 벗어날 경우 빅스텝 배제 못해”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까지 2개월 연속 6%대로 확인되면서 오는 2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 물가 흐름이 “6%를 넘은 뒤 2-3개월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한은의 전망에서 벗어나지 않은 만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빅스텝(0.5%포인트(p)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 필요”

2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108.74)는 외식·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뛰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물가 관리를 제 1목표로 삼는 한은 입장에선 방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은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서에서도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 수준(4.5%)을 상당 폭

상회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은 전망 수준(2.7%)을 소폭 하회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는 물가 리스크(위험)가 더 크고 당분간 높은 물가 흐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7월 기대인플레이션 4.7% ‘역대 최고’

당장의 높은 물가 상승률도 문제지만, 한은이 더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경제 주체들의 기대가 갈수록 커지는 점이다.

한은의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의 예상 물가 상승률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7%로 6월(3.9%)보다 0.8%p나 더 올랐다.

200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뿐 아니라, 상승 폭도 2

개월 연속 최대 기록을 세웠다.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강해지면 경제 주체들이 오른 물가 눈높이에 맞춰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줄줄이 인상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다.

◇한은 “물가 예상대로면 0.25%p ↑”

물가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상태도 이달 25일 열릴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75%p 인상)을 밝힌 뒤 미국의 기준금리(2.25~2.50%)는 한국(2.25%)보다 높아졌다.

한은로서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격차를 좁혀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 환율 변화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처럼 이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한은은 ‘2개월 연속 빅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0.25%p 인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이 총재가 통화정책의 ‘포워드 가이드’(사전 안내 지침) 차원에서 이미 여러 차례 0.25%p 인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총재도 추가 빅스텝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다.

그는 “물가가 예상했던 기조에서 벗어나면, 금리 인상의 폭과 크기를 그때 가서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빅스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투데이 경제

전력거래소 ‘공공기관 워크숍’ 성료

전력거래소는 지난 1일 나주 본사에서 경영진 및 핵심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새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공공기관의 역할 및 혁신방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관의 경영혁신 및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워크숍은 ▲새정부 정책 기조 및 국정과제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분야별 국정과제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방향 및 대응전략 ▲혁신기대인 5대 분야 중점 과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백석대 홍길표 교수의 강의로 진행됐다.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경영 효율화를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력거래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수회기자

광주디자인진흥원, 내일 ‘계림초 통학로 설명회’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안전하고 행복한 계림초교 통학로 조성 사업 추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광주디자인진흥원을 주관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의 ‘공공디자인 정책’에 기반한 어린이 통학환경 디자인 지정과제 부문 사업에 공모, 선정됐다.

어린이 드림존 등 보행안전사업, 스마트 쉼터 등 보행 편의 사업, 석축 개

선 등 가로 디자인 사업에 총 4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연말까지 추진된다.

설명회는 오는 4일 오후 4시 계림초교 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학부모회, 주민자치회 등 주요 이용자와 관계 기관 및 전문가 60여명이 참석해 사업의 기본방향 등을 공유하고 민관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디자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양시원기자



축산물 수입 무관세 방침 철폐하라! 2일 오전 세종시 아진동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축산물 수입 무관세 방침 철폐 요구 집회에서 축산인들이 송아지를 동원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젖소 송아지 한 마리 값이 튀김닭 한 마리 가격도 안 된다고 주장하며 사육값 폭등에 대한 특단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연합뉴스

aT ‘농산물 가격 예측 AI 경진대회’ 개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농산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의 농산물 가격 예측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2022 농산물 가격 예측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인공지능을 통한 문제해결에 관심 있는 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aT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주요 농산물 45종의 가격을 예측하는 양질의 모형을 확보해 농넷(nongnet.or.kr/농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가격예측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앞서 16일 유튜브 실시간 재방송으로 진행되는 사전설명회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다.

/양시원기자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獨 진출

7개 회사에 27대 공급 예정



현대자동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이 유럽 최대 상용차 시장인 독일에 진출한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물류, 제조 등 독일 7개 회사에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27대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스위스 23개 회사에 47대를 전달한 것에 이은 두 번째 유럽 수출이다.

이번 공급계약은 독일 연방디지털교통부(The Bundesministerium für Digitales und Verkehr-이하 BMDV)의 친환경 상용차 보조금 지원정책에 따른 것으로, 7개 회사가 현대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으로 BMDV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 이뤄졌다.

최근 독일 정부는 친환경 상용차 구입 업체 및 충전소 등 인프라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각 업체별로 대상 차량을 선정해 지원하도록 했다.

현대차는 이러한 독일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지난 4월 수소상용차 전문 판매법인 ‘현대 하이드라젠 모빌리티 독일’을 설립하고 독일 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현대차가 공급하게 될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총 중량 42톤급(연결차 중량 포함) 대형 카고트럭으로, 2개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성된 180kW급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과 최고출력 350kW급 구동모터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400km를 주행할 수 있다.

/기수회기자

유류세 탄력세율 50%...휘발유 최대 148원 더 내린다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등 관련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오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탄력세율 확대가 곧바로 유류세 인하로 이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반영해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 여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2024년까지 정부가 유류세를 또다시 최대폭으로 인하한다면 휘발유 기준 세금이 4당 최대 148원 추

가로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내년 1월부터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6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 18만원, 총급여 8천만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29만원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대상자는 면세자를 제외하고 1천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신협, 상반기 순이익의 전년비 16% ↑

신협중앙회는 2일 올해 상반기 전국 신협 당 기준순이익이 2천88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총자산은 134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8.0% 늘었다.

여신 잔액은 102조4천억원, 수신 잔액은 121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대비 각각 9.2%, 8.8% 증가했다.

전국 조합 873곳의 평균 자산금액은 1천539억원으로, 지난해 말 평균보다 114억원 증가했다.

자산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대형 조합은 117곳으로 지난해 말 99곳보다 18곳 늘어나 비중이 11.3%에서 13.4%에서 2.1%포인트 높아졌다.

/기수회기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Rg3홍삼을 선물하세요! 시대가 요청하는 Rg3홍삼!

**품질을 비교할 때
홍삼성분 함량 꼭 확인!!**

- 제품1g당 함유된 홍삼성분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1.6mg/g
홍삼사랑 ----- 2.7mg/g
- 홍삼농축액(홍삼성분70mg/g)기준 비율
예) 고려홍삼순원액 - 2.25%
홍삼사랑 ----- 3.8%
- 주요성분 Rb1+Rg1+Rg3 함량
예) 고려홍삼순원액 - 9mg/포
홍삼사랑 ----- 13mg/포
- 인삼성분을 변화시킨 산삼성분 Rg3
예) 고려홍삼순원액 - 4mg/포
홍삼사랑 ----- 6mg/포

실비용

고려홍삼순원액(70ml) 30포

고급선물용

홍삼사랑(60ml) 30포

홍삼성분함량과 가격을 비교해보세요!

고려홍삼순원액 50,000원 → 45,000원
홍삼사랑 150,000원 → 135,000원

고품질을 보증하는 바로 이 맛!

한약재, 첨가물 NO!	▶ 쌉쌀한 맛
홍삼성분 다량 함유	▶ 푹내가 없음
산삼성분 Rg3 다량 함유	▶ 느끼한 맛 없음
6년근 1등삼 25지	▶ 깔끔한 맛
국산 홍삼만 사용	
불필요한 고형분 제거	

**홍삼성분만으로도 맛과 색이 진하므로
다른 첨가물이 필요없습니다.**

혼자 먹기엔 아까운 품질!

| 동별 매장 모집 |

자격 : 6평 이상 매장 준비 가능한 분
보증금 : 없음

(주) 고려홍삼공사 061) 373-8179

www.goryeohongsam.shop